삼성전자, LCD 매출 100억달러 달성

2010년 매출목표 20조원 설정 … LCD 세계시장 1000억달러 넘어서

삼성전자가 2005년 LCD 부문에서 처음으로 매출액 100억달러(약 10조원) 고지를 돌파한 뒤 2010년 200억달러(20조원)를 달성할 계획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2010년까지 100인치급 LCD를 개발해 LCD 부문의 초대형화를 주도할 계획이어서 PDP에 이어 LCD에서도 100인치가 깨질 전망이다.

세계 LCD 시장규모는 2010년 10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완 삼성전자 LCD 총괄 사장은 10월19일 일본 요코하마 Pacifico Yokohama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전시회 <FPD 인터내셔널 2005>에서 <FPD 산업-기회와 위기>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2005년 삼성전자의 LCD 부문 매출은 약 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에는 2배 수준인 200억달러로 확대해 선두 위치를 굳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LCD 부문 매출 100억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처음으로 2004년에는 91억달러(약 9조1000억원)를 기록했었다.

이상완 사장은 "3년 전에는 2005년 평판 디스플레이(FPD) 시장규모를 470억달러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660억달러로 성장했으며 2010년까지 115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인치부터 100인치까지 모든 사이즈에 적용 가능한 LCD가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LCD TV 시장에 대해서도 전문기관들은 2010년 7000만대를 예측하고 있지만 1억대 시장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제품비중도 2005년 모니터 40%, 모바일 27%, TV 17%, 노트북 16%에서 2010년 TV 42%, 모니터 24%, 모바일 22%, 노트북 12%로 TV 중심으로 급속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LCD 부문의 기술적 과제로 개구율(빛을 통과시키는 비율)을 50% 향상시키는 디자인 혁신, 잉크젯 프린팅기법 도입 등의 공정 단순화, 새로운 백라이트 광원 개발 등 재료혁신 등을 꼽았다.

<화학저널 2005/10/20>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